

One pick

업 앤 다운



송지아

‘솔로지옥’으로 뜬 송지아의 몰락 ‘전참시’ ‘아는 형님’ 촬영분 편집

‘반짝 스타’의 몰락이다.

넷플릭스 예능 콘텐츠 ‘솔로지옥’으로 스타덤에 오른 인플루언서 송지아가 명품 브랜드 위조품 착용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콘텐츠 등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 위조품을 착용한 채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송지아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해당 논란이 커지자 17일 SNS를 통해 “콘텐츠에 착용하고 나간 명품브랜드 제품 일부가 가품이 맞다”고 인정했다. 또한 “디지털 창작물 침해와 저작권 무지로 인한 발생한 모든 상황에 대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사과에도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앞서 “가품이 찍힌 SNS 게시물과 유튜브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지만, 남은 게시물 속 제품들도 위조품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가 유튜브 영상에서 거액을 주고 구매한 것처럼 가품을 소개했다며 “속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송지아가 촬영을 마친 예능프로그램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20일 MBC ‘전지적 참견시점’ 제작진은 “29일 방송하려던 송지아의 촬영 분량을 모두 편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TBC ‘아는 형님’ 측도 22일 방송을 흐름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출연 장면을 일부 편집하기로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편집 | 최해경 기자 hk7048@donga.com

26일 개봉하는 화제작 ‘킹메이커’ 설경구

“김대중 전 대통령 역...영화 인생 가장 큰 부담”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는데...
눈 떠보니 촬영장에 있더라
나의 최고 작품은 ‘박하사탕’
‘삶은 아름답다’ 대사 못잊어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는데...”

배우 설경구(55)가 말을 잇다 말고 눈물을 질끈 감았다. 26일 개봉하는 영화 ‘킹메이커’(감독 변성현·제작 씨앗필름)를 떠올리다 불쑥 속마음을 내뻐는 것이다. 1971년 4월 대통령선거를 배경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참모 고 엄창복의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가 “어느 하나 쉽지 않아” 처음에는 “눈길도 가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랬던 영화를 마침내 극장에 내건다. 시나리오를 받은 2016년 이후 6년 만이다. 설경구는 “어느새 눈 떠보니 촬영장에 서 있더라”며 “인생은 예측하지 않은 일투성이”라고 너털웃음을 지었다.

● ‘캐릭터 이름까지 바꿨다’

극중 대선에 출마하는 정치인 김운범을 연기한다. 1971년 대선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맞붙은 제1야당 후보 김 전 대통령을 본뜬 캐릭터다. 배우 이선균이 엄창복을 모티브 삼은 서창대 역을 맡아 ‘킹메이커’로 활약한다.

“지나해 내놓은 영화 ‘자산어보’에서도 실존 인물인 정약전을 연기했지만, 이처럼 부담을 느끼진 않았어요. 김 전 대통령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전부 알



배우 설경구는 영화 ‘킹메이커’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티브 삼은 정치인 김운범을 “내 방식대로 연기했다”면서 “그게 극의 재미를 살리는 방법이라 확신했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수 있는, 모두의 기억에 딱 떠오르는 근현 대사 인물이잖아요. 변 감독에게 캐릭터 이름을 부디 바꿔 달라고 졸랐어요. 이름을 바꿔 압박감이 조금 가졌지만,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아직도 긴장돼요.”

전라도 사투리 등 김대중 대통령의 특징을 “꾼이 따라하지”는 않았다. 대선 “인간 김운범”에 초점을 맞췄다. “나만

의 표현방식”과 “실제”의 가운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소재와 이야기가 어려웠지만 2016년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으로 만난 변성현 감독 때문에 출연을 결심했어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를 대체 어떻게 만들까 궁금하더라고요. 다만 대선(3월9일)을 40여일 앞둔 개봉 시기만은 당황스러워

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우리 모두 예상하지 못했어요. 부담스럽지만 어쩔 수 없죠.”

● “나를 만든 ‘킹메이커’는?”

1993년 연극 ‘심바새매’로 데뷔해 내년 활동 30주년이다. 영화에서 김운범 옆을 지킨 서창대처럼, 그에게도 ‘킹메이커’가 있느냐 묻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라며 웃었다.

“도저히 한 명만 꼽기 어렵죠. 연극무대와 스크린을 오가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박하사탕’ 이창동 감독부터 최근 변성현 감독까지 전부가 나에게 영감을 줬죠. 이선균 씨처럼 상대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작품 안에서 제가 의지할 사람은 오로지 파트너밖에 없거든요. 끊임없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해왔어요.”

그를 만든 사람은 꼽기 힘들지만, ‘작품’만은 명확하다. 설경구의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 시킨 2000년 영화 ‘박하사탕’이다.

“제게 최고의 작품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박하사탕’이에요. 카메라 앞에서 얼굴에 경련이 일 정도로 떨리는 모습을 30년간 연기해온 지금은 도저히 표현할 수 없죠. 복합적인 의미에서 그 영화를 잊을 수 없어요. ‘삶은 아름답다’라는 영화 속 대사는 요즘에도 사인할 때마다 적어 놓어요. 거기에 한 단어를 추가하죠. ‘그래도, 삶은 아름답다’라고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설연휴 극장가...해적2 vs 킹메이커 vs 특송

코믹 액션-정치-추격 액션
모처럼 한국영화 3파전 기대

설 연휴 극장가에 모처럼 한국영화 ‘삼파전’이 시작된다. 할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이 쳐 놓은 거미줄이 너무나 촘촘하고 강력해 좀처럼 개봉할 틈을 찾지 못하던 한국 영화가 설 연휴를 앞두고 잇따라 개봉을 확정하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코믹 액션 VS 정치 VS 추격 액션’ 주연, 소재, 그 안에 녹아든 화려한 볼거리도 다양하다.

설 연휴 전날인 26일, 두 편의 영화가 동



해적2

특송

시에 개봉한다. 2014년 여름에 개봉해 관객 860만 명을 동원했던 ‘해적’의 후속편인 ‘해적: 도깨비 깃발’(해적2)과 1971년 대선을 다룬 정치극 ‘킹메이커’이다.

코믹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관객들의 ‘개취’(개인의 취향)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사극 액션 어드벤처를 표방하는 ‘해적2’는 고려 왕실의 마지막 보물을 차지하기 위한 모험을 펼친다. 전편의 김남길, 손예진, 유해진 등의 바통을 강하늘, 한효주, 권상우가 8년 만에 이어받아 의적단 두목 무치와 해적 단주 해랑 역 등을 선보인다. 여기에 이광수, 엑소의 오세훈, 채수빈 등도 힘을 보탠다. 이들은 물을 가르며 시원한 액션 연기를 선사한다.

코믹 액션에 맞수를 놓은 영화는 정치 드라마다.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을 만든 변성현 감독의 신작으로 대선을 4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1970년대 선거 현장으로 시뮬레이션 돌린다.

설경구와 이선균이 주연한 ‘킹메이커’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선거 참모였던 엄창복을 모티브로 한 영화다. 극중 등장

인물은 모두 바꿨지만, 배우 김종수가 박 대통령, 유재명이 김영삼, 설경구가 김대중 역을 맡았다. 이선균이 참모 엄창복을 연기한다.

배우 박소담이 이에 맞선다. 사실 영화 ‘특송’은 12일 개봉했지만, 관객 23만 명을 동원해 한국 영화 1위를 기록하며 설 연휴까지 상영을 이어간다.

‘특송’은 말 그대로 ‘특별배송’이다. 성공률 100%의 특송 전문 드라이버 은하(박소담)가 예기치 못한 배송사고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추격전을 담은 범죄 오락 액션 영화다. 박소담이 고난도의 자동차 추격 액션과 맨몸 액션을 선보인다. 서울의 좁은 골목길에서 자유자재로 기어를 바꿔가며 펼치는 추격전이 압권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밀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함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